

(14) 기본연구과제명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새로운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연구책임자

안형도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냉전이 해소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외에서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특히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국책연구기관간에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시장통합논의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적 FTA 체결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이러한 긍정적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3성 및 북한 등 상대적 낙후 지역을 포함하는 소위 동북아 지역은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 안보 문제의 첨예한 대결로 지역통합은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한중일 간의 시장통합과 더불어 러시아,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이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통합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비롯되었음. ECSC는 전후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의 하나로 독일과 프랑스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생산하고 관리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이 그 후 관세 동맹 및 시장통합, 통화동맹으로 이어져 정치통합까지 추구하는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된 것임.
- 이러한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동북아는 과거 유럽과 다른 점도 많지만 유사한 면도 적지 않음. 우선 동북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임. 2차 세계대전 시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있었으며 한국 전쟁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 및 남북한 간의 전쟁이 있었음. 최근에는 중일, 한일 및 한중간에 영토 및 역사 문제로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 가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은 동 지역의 핵심적 불안요인으로 되고 있음. 이러한 제반 문제의 해결 없이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경제 통합이 아세안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하며 동북아의 경제통합은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3성 및 북한 등의 경제개발 및 발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특히 이들 지역은 모두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 또는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3성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각각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낙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북한은 아직은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지 못하나 근래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위한 개혁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동북아지역통합에서 가지는 북한과 러시아 및 중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성과 및 그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둘째, 이와 함께 경제학 및 국제관계론 등에서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접근 또는 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ary)을 통해 동북아지역통합모델 구축을 모색하고자 함. 셋째, 이와 같은 모델 구축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지역통합의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동북아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연구가 존재하나 90년대에 국내에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의 동북아연구는 대부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개별 연구를 병렬적으로 취합한 것이거나 경제 문제에 치중한 연구가 대부분임.

-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차원에서보다는 정책 및 기업진출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어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음. 논의 내용 대부분은 기존 경제통합론의 응용 및 경제 발전론적 시각이 덧붙여지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음.
- 이 밖에 일반경제학 그 중에서도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부문별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국별 기초연구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연구하는 지역전문가들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처음으로 동북아경제통합모델을 제시한 것은 경북대의 손병해 교수로서 그는 지역규모의 국제간 경제통합을 지역적 통합(regional integration)과 국지적 통합(local integration)으로 나누고 동북아시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다각적 경제협력권의 기본형태는 국지적 경제통합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손병해(1991),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도 및 전략”, 동북아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KIEP; 손병해(1992),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KIEP).
- 손병해는 국지적 경제통합의 현실적 적용을 국제분업형 경제권과 국제협업형 경제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 설명함. 국제협업권 경제권은 지역내 개발 가능성과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역내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지역내 상공업 및 교통의 중심지역에 국제공동의 다국적 보세가공구역 내지 다국적 관리하의 자유무역구역을 설치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음. 국제분업형 경제권은 제한된 지역 제한된 산업에 국한하여 각국간 무역 및 자본이동상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도시간 부분적 자유무역지대(Partial Free Trade Zone based on Inter-City Cooperation)를 의미함.
- 손병해는 전 국경을 자유무역지대화하는 구미형 面形자유무역지대와 구별하여 역내제국의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線形자유무역지대(Linear Free Trade Zone)라 명명함.

-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킨 계기가 된 것은 한국북방경제학회와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가 통합되어 발족한 한국동북아경제학회의 창립학술심포지엄임. 「동북아경제협력 모형의 총점검」이라는 주제하에서 개최된 동 학술회의에서는 총4개의 모델이 제시되었음.
- 김성훈(1995)은 황해경영모델로서 소위“장보고” 모델을 제시하면서 “탈정치로 민족의 경제(실리)를 최우선시한 장보고형 해외경영철학을 되새김으로서만이 대망의 동북아경영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의 모델은 정경분리모델이며 서해안시대의 개막에 호응하는 사실상의 환황해경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김성훈(1995),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보고 모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 김영호(1995)가 제시한 연띠우기 모델은 동북아경제협력에서 남북관계의 측면을 강조함. 동 모델은 한·미·일 삼각관계와 북·중·러 삼각관계가 탈냉전 과정에 서로 엉켜 일종의 다중삼각관계를 이루면서 형상화됨. 마치 연의 한복판의 텅빈 구멍과 같이 완충 지대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의 구심점이되고 조정역할을 할 나라가 필요한데 이러한 연심에 해당하는 국가가 남북한이라는 것임. 여기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연을 띄우게하는 평화의 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김영호(1995), “동북아 경제협력과 연 띄우기 모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 오용석(1995)의 물결모델은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의 지역적 긴밀성과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동북아경제협력권을 구분하고 그 범위를 점차로 넓혀 나간다는 단계적 협력확대론을 제시함. 동 모델은 핵심적 협력권의 구축을 위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은 한국, 타이완 및 홍콩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앞의 연띠우기 모델과 구별됨(오용석(1995), “동북아 경제협력의 물결 모형”,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 끝으로 이창재(1995)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의 다층성을 강조하는 올림픽모델을 제기하였음. 동북아는 장소를 제공할 뿐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강조하고 자유무역과 같은 국한된 형태만을 중시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경제협력을 포함한다는 “다층성”을 부각시킴 (이창재(1995), “동북아 경제협력: 올림픽 모형”,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보고모델은 경제우선전략을, 연띠우기 모델은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통일의 여건조성측면을, 물결모델은 동북아경제권의 단계적 확대를, 올림픽모델은 동지역협력의 개방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음. 또한 선형 자유무역지대모델은 국지적 경제통합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상의 세 모델은 모두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전략이나 요소 등을 강조하나 손병해의 부분적 경제통합론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인 경제협력의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경제협력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동북아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찌기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에 의해 제기된 바 있음. 모리시마는 일본의 오키나와를 독립시켜 동북아공동체의 수도로 하고 중국을 6개의 블록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각각 2개의 블록으로 그리고 대만을 한 개의 블록으로 하여 공동체 전체를 총 12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시장공동체’ 보다는 ‘건설공동체’안을 제창하였음(森嶋通夫, 1999, 박정동 역.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 森嶋通夫. 2001. 『日本にできることは何か-アジア共同体を提案する』 岩波書店).p. 130-131).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 안충영 외(2003) - 연구목적: 역내 경제협력의 부문별 내용과 각국의 지역정책을 분석	- 문헌조사, 통계분석	- 동북아경제협력의 진전사항 - 동북아경제통합의 주변 여건 - 동북아경제통합의 추진방향 - 한국의 역할과 과제
	2	- 과제명: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 Yong Shik Choo (2005) - 연구목적: 동북아 지역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 문헌조사, 통계분석	- 동북아 에너지 협력 - 동아시아 경제지역주의 - 동북아 신 안보질서와 한반도 - 한미동맹에 대한 신 접근

주 요 선 행 연 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of Northeast Asian Economies - Doowon Lee & othersed. (2005) - 연구목적: 동북아 경제통합의 주요이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무역과 투자 - 국제금융과 세계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 외 (2005) - 연구목적: 동북아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한 방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경제협력체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 동북아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의 모색과 정책시사점 - 연구목적: 기존의 지역통합 사례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낙후 지역에 대한 협력 방안 도출과 정치경제학 등 학제간 접근 방식을 통해 동북아지역통합 모델 구축을 시도하고 실현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지역통합 모델과 이론 - 지역 통합의 사례와 유형 - 동북아지역통합의 장애요인 역내 낙후 지역 개발과 정치 안보적 불안정 요소 -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의 구축 -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정책 시사점

■ 연구방법

- 동북아 주요국 현지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인터뷰
- 기존 연구자료 비교 분석 및 통계분석
- 국제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연구내용

- I. 기존 지역통합 이론과 사례의 검토 및 평가
 -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중심으로
- II. 동북아지역통합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 1) 북한문제
 - 북핵위기
 - 남북통일
 - 2) 동북아국가간 경제체제의 차이
 - 동북아체제전환국의 성과비교
 - 3) 동북아국가간의 역학관계
 - 영토 및 역사문제

- 중일간 경쟁관계
- 4) 중국경제의 비대칭성
 - 중국경제 고속성장의 위협
 - 중국의 민주화
- 5) 동북아국가간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 역내 낙후지역 개발과 협력
- 6) 공동의 문화인식
 - 유교, 한자문화권
- 7) 동북아 3국의 지역주의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III.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의 구축

-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시나리오별 모델 구상

IV.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정책 시사점

- I 장에서는 기존의 지역통합 이론과 모델을 정리함. 국제관계론과 경제학적 시각에서의 지역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동북아의 상황에 적용함. 또한 유럽 통합, NAFTA, MERCOSUR, AFTA 등의 통합사례를 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따라 살펴봄.
- II 장에서는 동북아지역통합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동북아통합과정에서 동 변수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분석함.
- III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동북아통합과정에서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함.
- IV장은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통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자유무역지대, 고나세동맹 등 Balassa 류의 기능적 경제통합론을 경쟁, 협력, 통합의 3단계 통합론으로 확대 범주화하고 북한 factor, 동북아국가간 역학관계, 체제전환, 중국경제의 비대칭성 등 정치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별 동북아경

제통합 모델의 제시를 시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방향 제시에 기여함.

- 본 연구는 지속적이고 필연적으로 진행될 동북아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통합과정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것임.

■ 협동연구기관

- 인천대 동북아통상대학과 공동 연구 및 중국측 연구기관과 협력 모색

■ 연구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11월